



전기안전공사, 지역 아동들에 따뜻한 성탄 선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추위를 선물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4일 지역 특수학교와 보육원 어린이 50여 명을 본사로 초청해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함께 마련됐으며, 황호준 부사장을 비롯한 전기안전공사 임직원들이 '일일 산타'로 나서 아이들에게 캐릭터 학용품과 텀블러, 무릎담요 등 다양한 성탄 선물을 전달했다.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전문 파티시에를 초청해 아이들과 함께 성탄 케이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전기안전공사 '유니버설 예술단'이 특별 공연을 선보여 행사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오상근 기자

'야구 레전드' 고향 전북에서 뿔다

도, 김성한 전 감독 명예 홍보대사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명장으로 평가받는 김성한 전 야구감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성한 전 감독은 군산상고를 졸업한 전북 출신 인물로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한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은퇴 이후에는 KIA 타이거즈 감독과 군산상고 감독 등을 역임하며 한국 및 전북 야구 발전에 기여해 왔다. 선수와 감독 시절 모두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이어온 김성한 전 감독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팀을 이끄는 과정에서 리더십도 보여줬다. 이 같은 도전 정신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은 새로운 이름과 비전으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전 전방에 내세우고 있는 '도전정신'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김성한 전 감독이 지닌 대중적 인지도와 두터운 팬층,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전북의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도민들의 열원과 전북의 도전 의지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선봉장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김성한 전 감독은 "고향인 전북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스포츠를 통해 쌓아온 경험과 도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매력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김성한 전 감독은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지역 체육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온 인물"이라며 "그의 열정과 리더십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 도전 과제와 전북의 이미지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김성한 전 감독은 "고향인 전북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스포츠를 통해 쌓아온 경험과 도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매력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김성한 전 감독은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지역 체육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온 인물"이라며 "그의 열정과 리더십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 도전 과제와 전북의 이미지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건축사회, 연말 이웃사랑 성금 기탁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전북지회회는 지난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회장 이상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국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와 생계 지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 연말 맞아 사랑의 연탄나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세밑 어려운 이웃에도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난 23일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가구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준화 부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주요 보직자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전주시 승암마을 일원에서 연탄 1,500장을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참여자들은 연탄을 한 장 한 장 옮기며 연말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준화 부총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거점국립대로서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공공성과 연대의 가치를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서곡초 교육공동체, 전북대병원에 후원금

전북대학교병원이 지역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전달 받았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전주서곡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병원 발전후원회에 기부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은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열렸으며, 양종철 병원장과 김소은 대의협력홍보부실장, 전주서곡초등학교 황기현 교감을 비롯해 이승민 학부모회장, 김준도 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전주서곡초 교육공동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재능기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가치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제작한 물품 등을 판매해 조성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총 246만여 원에 달하는 수익금은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사용처를 결정했으며, 희귀난치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을 돕는 데 쓰이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위기청소년 현장지원 차량 첫 지원

전북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향사랑 일반기부금(6,000만원 상당)으로 마련한 현장지원 차량을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차량 지원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일반기부금을 활용한 도 차원의 첫 사업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상담·보호하기 위한 현장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현장 상담과 긴급 개입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전용 차량 노후화로 아간이나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서 찾아가는 상담·보호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이번에 배차된 차량은 청소년 현장 상담, 긴급 위기 개입, 학교 및 지역 유관기관 연계 사업 등 찾아가는 상담복지 서비스 전반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는 곳이라면 지역과 시간을 불문하고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서비스 전반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는 곳이라면 지역과 시간을 불문하고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정읍지역 고교도 '인구 10만 사수 범시민 운동' 릴레이

정읍시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범시민 운동에 지역 미래를 책임질 교육계가 가세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내 주요 고등학교들이 '인구사랑 릴레이 캠페인'에 잇따라 동참하면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학교 담장을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시는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영여자고등학교(교장 김운은), 호남고등학교(교장 김기현), 글로벌산고등학교(교장 김성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들이 캠페인에 합류하며 힘을 보탤다. 한편, 정읍시의 인구사랑 범시민 운동은 1부서 1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 39개소가 동참하고 있으며, 릴레이 캠페인에는 시의화와 농협, 새마을금고, 기업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44개소가 참여해 총 80여 개 기관·단체가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업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44개소가 참여해 총 80여 개 기관·단체가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함께 하는 우리' ... 변산초, 세계문화축제 성료

변산초등학교(교장 정한상)는 지난 23~24일 '세계 속의 나, 함께 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세계문화축제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다양한 세계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를 전교생 35명이 참여해 첫째 날에는 서아프리카의 전통 음악 감상과 이색 악기 체험이 열리고 둘째 날은 정교장이 신라 북장으로 아이들이 한 달 전부터 소일 트리에 적은 소망편지 그 내용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세계날에 각 나라의 인사법과 전통의상을 입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춤을 각색한 무대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운봉 출향인사 김복태 회장, 출생축하금 기부

남원시 운봉읍은 고향 운봉의 미래를 걱정해 온 운봉 출향 인사 김복태 회장이 지역의 아이키우기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고 전했다. 김복태 회장은 개인 기부금 5,000만원을 쾌척해 사)운봉아이키움새싹회(이사장 신동열)를 설립했으며, 여기에 운봉출향인들과 유관들이 심시안반 정성을 보태 기부금을 모금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운봉에 거주하는 출생아 가정의 육아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금 전달행사 지난 18일 운봉읍사무소에서 열렸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백제약국 이재현씨,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순창군은 지난 24일 순창백제약국 대표의 가족 이재현 씨가 순창군에 고향 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제약국은 순창읍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세심한 복약 지도와 건강 상담을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MG새마을금고,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쾌척

정읍MG새마을금고(이사장 김석주)가 지난 24일 정읍시에 4,4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800박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해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온 새마을금고는 이번에도 겨울철 가난 해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나눔을 기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한파 대비 고객 쉼터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관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작업용 의복을 고객 쉼터로 변경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쉼터 운영은 한랭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고풍차·장애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운영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새마을금고, 저소득 아동 등 위한 케이크 기탁

무주새마을금고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케이크 20개(54만 원 상당)를 지난 24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정진화)에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상생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무주새마을금고는 2019년부터 매년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취약계층 지원,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OAS시스템, 도통동에 이웃사랑성금 기탁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남원 OAS시스템(대표 서주원)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주원 대표는 "작은 금액이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